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787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4
존재들의 죄.....	6
8880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6
5967 유전된 죄.....	8
9005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11
6870 종말에 대한 예언과 경고.....	13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16
6189 구속역사. 속죄의 대가. 자유의지.....	16
6513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17
8898 하나님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18
대적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20
6596 용서받지 못한 죄짐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	20
8550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에 합당한 설명.....	2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	24
3277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24
7330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25
9010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26
저세상에서 구원받는 일.....	29
5740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 구원의 역사.....	29
7085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30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는 일.....	32
5952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32
6449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는 일.....	33
7369 구속받기 위해 자유의지가 요구 된다.....	34
8420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36
7024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관점.....	38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한때 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들의 근원적인 시작점과 최종목표에 관한 지식이 전달돼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가지가 다른 한가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지식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 지식을 사람들이 영접하고 이해하는 일은 희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구속사역의 의미와 그의 이유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믿을만하게 보지 않게 된다. 이로써 이런 지식에 관한 생각들은 밀려나게 되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최선의 경우에 모범적인 삶을 산,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게 자극했던 한 사람이 한때 이 땅에 살았다는 정도이다.

만약에 사람이 실제로 올바른 예수의 제자라면, 즉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거절할 수 없이 예수의 구속사역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삶의 방식이 그에게 밝은 내적인 빛을 보장해주고 그는 그의 영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전적인 진리 안에서 인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의 역사가 가장 밝은 깨달음을 보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 결과로써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그의 실제적인 사명에 관한 지식을 잃게 되었다. 그들에게 예수는 단지 비록 그가 높은 온전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이다. 그들은 예수가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이 땅에서 최고로 가능한 온전함에 도달했다는 것을 실제 인정한다.

그러나 나를 떠나 타락한 영들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져야만 함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로써 한때 타락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속해야 하는 실제적인 예수의 사명은 전혀 알지 못하는 못한다. 그들은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어느 정도 사랑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들의 심장에 비추어 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와 모든 사람의 시작과 목표에 관한 전적인 설명을 그들에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속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믿을만하지 않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낮은 사랑의 수준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수준은 항상 낮아지고 이로 인해 예수를 통한 구속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빈 소리가 되어버렸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이 그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밝혀줘서 진리는 그 사람 자신 안에서 생겨나고 모든 영적인 연관 관계는 그들의 눈 앞에 선명하고 빛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 말이 전해지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로써 사람 안에 영적인 불씨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사람의 의식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예수 그리스

도에게 자신의 길을 인도했을 것이다. 인류는 그들의 사랑이 없는 상태 때문에 이제 종말 가까이에서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지식을 잃게 되는 것을 영적인 깨달음이 적어지게 된 것을 사람들이 자신 안에 빛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이유와 중요성에 관한 모든 지식을 잃게 되었다.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단지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의 이유를 묻지 않게 된다. 그들의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연락해진 의지 때문에 그들이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서 예수를 닮는 삶은 불가능하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시험에 대항하는 계속하여 싸움이 요구되는 것을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을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원죄의 결과로서 의지가 아주 연약하게 되어 너희 혼을 성숙하게 하는 이 땅의 과제를 바로 이런 연약하게 된 의지 때문에 그리고 대적자가 너희를 절대로 자유롭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성취시킬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로 성취시킬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먼저 이런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위해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사역의 은혜인 강하게 된 의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의도한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구속을 받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온전함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종말의 때에 너희에게 아주 특별하게 너희가 인간으로써 존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한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나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목표 도달하려고 하면, 왜 너희가 그를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만드는 자는 내가 내 말을 통해 그에게 알려주는 내 의지를 성취시키는 자는 내 말을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진실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빛이 내면으로부터 비추어 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격려한다. 그러면 그에게 전적인 선명함이 주어 질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진지함으로 구속받기를 추구할 것이다.

아멘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B.D. No. 8880

1964년 11월 8일

만약에 너희가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는 내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이 사랑은 너에게 항상 계속하여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까지 갈지만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다.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음성을 통해 단지 선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출처를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다. 이는 단지 선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가 너희에게 잘못 된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너희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이런 보장은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심지어 내 진리의 전달자에게도 전달 내용이 진리인지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빛이 전달자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함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향한 의지와 갈망을 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대적자가 특별히 빛을 전하려는 너희에게 역사함을 말한다. 그는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심장에 그들이 받은 것의 진리성에 의심을 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 역사도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항상 분명하게 대적자가 이미 침범한 곳에서 오류를 밝혀 낼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목표는 너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 순수한 진리를 열망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창조의 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빛의 전달자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었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졌고 이것들은 우리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은 항상 더욱 빛나게 나를 향해 타올랐다. 왜냐면 그들 안에 같은 창조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물로 인해 기뻐하

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축복을 측량할 수 없
이 높일 수 있었다

창조 된 존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은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왔으며 그
들이 내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진 대로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전
제할 때에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의 일이 저하됐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빛과 그들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생각은 혼돈되게 되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고 자신 안에서 굳어졌다.

그러나 나로부터 한때 나온 능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경을 시켰다.
이 과정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너희는 이를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영
접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
의 거절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빛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또는 타락
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모든 설명들을 오류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할 때 까지는 내 의지 아래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굳어
지게 되었다. 내가 한때 존재로 발출시킨 내 능력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입자로 분해가 되어 작은 가장 작은 입자가 되어 이 입자들로부터 창조물이 생성되게 되었
다. 이 때부터 존재들은 모든 반발심과 대항해 싸워야 했다. 왜냐면 이 들은 자신을 다시 성장
시키기 위해 이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하는 일은 나로부터 그
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있었다. 이 존재들은 가장 밝은 빛의 상태에 있었고 이로써
깨달음 가운데 있어 단지 내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존재들이 나에게
진실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 의지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갈 때에 그들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굳어지
게 되었고 행함이 없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창조물들이 생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영
원 전부터 루시퍼와 존재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타락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빛의 전달자 루시퍼에게 같은 모든 능력을 주었고 이 능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
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에게
전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인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들이 나를 떠나게 움직일 수 있
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자
신을 담음으로써 이 모든 일은 단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으로 출발되어 나왔다는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 자
신에게 대적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의지 안에서 존재의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에게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된 의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면 이것은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시퍼는 내 반대 극이 되었고 모든 악한 생각들의 근원이 그 자신이었고 존재들에게 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대적자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내가 존재들로부터 그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귀환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물을 만들 때까지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 존재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의 모든 잘못 된 생각을 버리고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오랫동안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적인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신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 만으로도 이미 악이 내 안에서 근원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신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적이라는 의미는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요약해서 내가 내 안의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지 선한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지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내 대적자를 위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가 내 대적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악했고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창조 했다. 나는 나 자신과 같은 권세가 있었고 그는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내 대적자가 사용하는 가장 악한 속임수는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들의 출처가 내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였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존재에게 혼동의 상태가 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 가운데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고 이로써 분해가 되어 묶임을 받고 모든 종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 가운데 이 능력을 다시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있는 동안에 타락한 자 안에 놓여진 루시퍼의 생각이 원인이 된 죄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내 과정이 되었다.

이로써 사탄은 원하지 않게 이런 귀환의 역사에 참여해 일하게 되었고 나는 이를 영원으로부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그를 내 반대의 극으로 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유전된 죄.

B.D. No. 5967

1954년 5월 29일

너희가 대답 받기 원하는 질문이 항상 너희 안에서 떠올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긴밀한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이 가운데 너희가 영의 음성을 통한 내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면, 이제 떠오르는 생각을 내 응답으로 간주해야 한다. 너희의 갈망과 나를 향한 부름이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없이는 너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없이는 너희가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세력들이 너희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진리의 제공자인 나를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다음 말을 해줘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에게 항상 단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의 끝 없는 깊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내 역사와 통치의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온전하지 못함이 부족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성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번개 같은 속도로 설명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받아야만 하고, 단지 너희의 이해할 능력에 따라 너희에게 내 창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묘사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또한 영적인 과정들은 단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사람의 심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과정은 단지 연약한 비유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영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묶여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전에 타락한 일을 통해 잃어버린 완전한 자유를 먼저 이 땅의 삶을 통해 다시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의지에 제한을 가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처음으로 한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일이 그들을 생성되게 한 나에게 반역한 첫 번째 죄이다. 단지 자유의지로 인정하는 일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모든 창조물을 생성되게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들은 나를 실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깨닫도록 강요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자유의지가 "유혹" 가운데 자신을 다시 입증해야 했다. (1954년 5월 28일)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으로 집중해야만 했고, 금지와 유혹이 동시에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연히 유혹은 약속으로 끌어드리려는 일과 연관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 저항해야 한다.

금지과 유혹은 양측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과 내 대적자에게 머무는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창조한 존재가 목표에 도달하거나 또는 깊은 곳으로 새롭게 타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욕망이 주어져야만 하고, 사람에게 또한 이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하거나 또는 훨씬 더 높은 목표이고 이 땅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일보다 천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와 함께 하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회복은 나와 내 대적자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대적자도 또한 영적인 존재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대적자는 속이는 가짜 재물과 가짜 행복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영원히 축복된 삶을 잃게 한다. 나는 이런 유혹을 알았고 그러므로 내가 최초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계명을 주었다. 이런 경고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안의 모든 욕망을 억누르게 하기에 충분해야만 했다. 내 대적자는 내 경고와는 반대로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

를 최고의 권세로 깨달았지만 그러나 거짓을 따랐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의 욕망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그들이 욕망에 굴복하게 했는가? 그들은 낙원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 아래 있었고, 그들은 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가운데 행복하게 느꼈다. 긴밀한 사랑은 또한 최초의 창조된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이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이미 내 대적자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랑이 나와 동역자에게 향한 동안에는 의지의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런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면서 이런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얻으려는 욕망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들의 사랑이 요구하고 이기적이고 낮은 차원의 사랑이 되었고, 이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돼야 하고, 그들이 그들의 욕망보다 내 계명을 더 높게 여겼더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의 권세에게 그들 자신을 드렸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첫 인간 부부를 축복하기 원했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첫 인간 부부가 죄를 지었다. 내 창조 계획을 따르는 어떤 일에도 죄가 없고, 법적인 질서를 따라 일어나는 일에 죄가 없고, 출산 과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 어긋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려는 의지가 없이 감각의 만족시키는 일은 신적인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내 대적자가 타오르게 한 자기 사랑이고, 사람들을 끌어 내려 전적으로 대적자의 권세 아래 빠지게 한다.

최초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사랑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런 거짓 사랑이 죄였다. 이 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인 원죄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 죄는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죄이다. 이런 죄는 그들을 생성되게 한 자로부터 유전된 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없는 죄이다. (1954년 5월 29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심장 안에 불씨로써 놓여 있고 가장 큰 화염으로 타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목표였고 목표인 이런 사랑을 뒤집는 일을 내 대적자가 성공시켰다.

순수하고 신적인 것이 불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단지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랑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번식하는 일이 또한 수많은 혼들이 내 대적자에게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에 베푸는 신적인 사랑과 행복하게 되는 일이 최정점에 달해야 하는 번식하는 일이 내 축복 아래 일어났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순수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랑을 위한 순수한 신적인 사랑을 잃게 된 일이다.

사람 안의 하나님의 불씨는 사탄의 영향으로 꺼졌고 대신에 모든 고귀하고 순수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불이 타올랐다. 감각이 자극을 받아 가장 높은 욕망이 되게 했다. 이런 일은 내 창조의 역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대적자와 내 피조물의 자유의지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타락은 번식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자극하고 자유의지로 불을 붙인 그릇되고 죄악된 사랑이었다. 신적인 의미에서 행복하게 하는 창조의 역사가 불결한 영들의 놀이로 변질되었다. 내 대적자가 나 자신이 내 축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했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역사는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이고, 이로써 이제 이 사랑이 생성된 존재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를 통해 항상 밝은 사랑의 빛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나에게 돌아 오는 길을 찾고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인류가 나오게 했을 역사이다. 왜냐면 사랑이 발산되는 곳에서 나를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은 이 의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혼을 얻기 위해 내 대적자와 싸웠기 때문에, 대적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왜냐면 이 일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내 피조물이 귀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은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 다시 위로 향하는 길을 만들 때까지 더 이상 스스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그러나 사랑이 내 대적자와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이 사랑은 나를 떠나 타락한 마지막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B.D. No. 9005

1965년 7월 1일

나는 너희가 나에게 질문하는 모든 영적인 질문에 답변한다. 먼저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한곳은 내 뜻이 아님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의지가 묶여진 상태인 의무단계에서 보낸 기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이 기간은 끔찍하게 긴 시간으로서 너희가 다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진실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가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인 사람으로서 치러야 할 너희의 의지의 시험을 요구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단지 나에게 다시 복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너희는 이를 통해 너희가 한때에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전에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했던, 너희는 단지 너희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므로 첫 사람들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모든 것들이 그의 다스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내 창조의 권세의 영광스러운 작품들로 둘러 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했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했고 그들 안에 악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첫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로부터 창조된 원래 영들이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 내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대적자도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시 의지가 나를 따를지 그를 따를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쉬워야만 했던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로써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에 극복했던 모든 악한 충동들이 다시 깨어났다.

조상들이 이제 그들의 성품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고 대적자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항상 더욱 더 어려워졌다. 첫 사람이 어렵지 않은 시험에 합격했으면, 나는 그들이 이전에 지나왔던 끝 없이 긴 과정만으로 충분히 여겼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로 그들의 사랑을 다시 나에게 돌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이 땅의 창조물들을 기뻐하기 위해 살았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좋은 영향력만을 끼쳐 이로써 창조물들도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단지 전 단계였을 것이고 대적자의 권세는 꺾이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 사람이 의식적으로 나에게 헌신함으로 대적자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 대적자는 더 이상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고 자신 스스로 내 사랑에 복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사람에게 단지 자유의지로 다시 내 비추임을 허용하는 일만을 요구했다. 그랬다면 원죄는 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이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이 다시 반복되었다. 이 전에는 단지 창조물 안에 묵임을 받은 영적인 세계에만 미쳤던 것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다. 첫 사람이 만약에 그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 끝 없이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탄적인 성품이 사람 안에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에 대항해 싸우는데 사람의 의지로는 모을 수 없는 큰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사람의 실패를 깨달았을 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제공한 빛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사랑에서 나온 자유의지로 이런 두 배의 죄를 나에게 속죄하기 위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자원했다. 나는 원초부터 이런 두 번째 타락이 실제 일어날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만 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못하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모든 존재를 다시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 년이 나에게서는 하루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축복된 영원한 삶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1965년 7월 1일), 너희가 언젠가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염려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또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되고 과거에 받은 모든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첫 사람이 타락한 후에 스스로 만드려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내가 진실로 첫 부부에게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주었음을 알아야만 하고 그들 안에 사랑이 강했으면, 그들이 성취시킬 수 있기에 쉬운 계명만을 내가 주었음을 알아야만 하고 그의 사랑만이 자신이 나에게 헌신하기로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이 깊은 사랑이 모든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됐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 깊은 사랑이 모든 유혹가운데 대적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타락은 일어났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적자와 공개적으로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모든 후손들은 새롭게 짐을 지게 되었다. 왜냐면 대적자는 사람들을 항상 더 큰 사랑없음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 그들의 의지를 더욱 약하게 하여 사람들이 구속사역이 없이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고 항상 더 깊은 흑암으로 떨어졌다. 나 자신이 이 역사에 경계선을 정했다. 나는 자신을 구원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구속사역의 은혜를 다시 영접할 자세가 되어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인간의 의지와 반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의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창조물 안을 거치는 과정으로 실제 충분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이런 고통스러운 의무단계를 통해 쉽게 유혹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자에게 그가 끔찍한 방법으로 최대한 사용하는 모든 혼에 대한 권세가 다시 주어졌다.

그러므로 대적자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 모든 능력을 갖춘 원초의 영이 첫 인간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결정을 하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남아야만 했다. 내 대적자가 이런 자유의지가 자기에게 향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새롭게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써 영들이 나를 떠나는 죄를 다시 범했다. 그러나 대적자의 이런 권한을 빼앗을 수 없었다. 왜냐면 한때 타락이 자유의지로 이뤄 졌고 그들이 대적자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다시 가장 큰 고통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다시 타락하기 원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왜냐면 그가 다시 그의 자유의지로 행했고 같은 자유의지로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대적자와 싸우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음으로 한때 그들이 떠났던,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모든 자들을 대적자로부터 빼앗음으로 내 사랑 자체가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전과 같이 다시 너희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아직 묶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갈망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더 이상 떠나지 않기 위해 나에게 너희를 다시 소유할 권리를 주면,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이다.

아멘

종말에 대한 예언과 경고.

B.D. No. 6870

1957년 7월 12일

구원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땅이 파괴되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기 까지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짧은 기간이 남아 있다. 너희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면, 너희 모두는 아직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하는지 또는 너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지에 축복이 달려 있다. 왜냐면 너희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종말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아직 아주 충분하게 너희 모두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자주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귀에 계속해서 너희 모두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들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암시이고 징조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위에서 울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사건은 누구에게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종말이 그들에게 또한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 주고 누가 자연재해의 희생양이 될 것 인지에 대해 경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종말이 다가오고 모든 각각의 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의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너희가 짧은 시간을 단지 잘 활용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내 인도를 구하면, 너희가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경고와 훈계를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다가오게 하고 너희는 재앙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 줄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아야만 하고 그러므로 또한 더 명확한 증거를 너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의 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간다. 내가 아직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릴 것이고 이런 일이 또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들의 게으른 삶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언젠가 놀라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종말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잠자는 사람들은 그들의 편안함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서히 죽음의 잠에 빠져든다. 그러나 그들의 혼은 단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자를 더 적게 생각하고 그의 구속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에게 사람들을 지배할 권세가 있고 죄 많은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오직 한 사람이 그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없이는 종말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건이다. 왜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에 맡겨지기 때문이고 그들이 구세주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영접하도록 요구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가까운 종말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드리는 일은 그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없고 그들이 예수 없이 먼저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그들은 빛의 나라에 의해 영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종말은 돌이킬 수 없게 찾아온다. 그러나 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끈다면, 그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종말이 그들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을 이루게 될 것이고 구속의 역사를 활용할 것이고 이로써 그가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역사. 속죄의 대가. 자유의지.

B.D. No. 6189

1955년 2월 14일

L 예가 되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었다. 왜냐면 혼들이 속박받은 것을 느꼈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혼들은 강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주인에게 붙잡혔고 그러므로 이런 주인은 그들이 도움이 없이는 풀 수 없는 굳은 사슬로 그들을 가두었다. 나는 이제 도움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왜냐면 내가 마찬가지로 주인으로서 속박을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먼저 그를 패배시켜야만 했고 싸우기 위해 그와 맞서야만 했고 먼저 그의 소유물을 해방시켜줄 권리를 얻어야만 했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너희의 의지를 통해 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너희의 고통은 너희의 잘못이다. 그러나 나는 인류를 불쌍히 여겼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자원하여 나를 떠났을지라도 내가 내 피조물들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대적자에게 대항해 싸웠고 사랑의 무기로 그를 이겼다. 나는 그에게 큰 몸값을 제공했고 나는 자원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다. 내 사랑이 너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대적자에게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쳤다. 나는 내 대적자의 종들과 사형 집행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게 했다.

너희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이 너무 깊어 너희를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나 자신이 짊어졌다. 내 대적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내가 너희를 그의 권세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죄로 벌어드려 내 대적자가 계속하여 너희에게 행하기 원했던 일을 나에게 행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해 죄짐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비록 내가 내 대적자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그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겼고 내 대적자가 나에게 고통을 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속죄했기 때문에 그는 너희를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 맞섰다. 그러나 나는 단지 사랑의 무기로 싸웠고 그의 권세를 무너트렸고 그는 더 이상 너희에게 자신을 관철시킬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가 내 구속사역을 통해 그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제한 없이 다스릴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권세 아래 머물렀고 그들이 그들의 곤경 가운데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나를 부를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머물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혼을 위해 대속물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위를 갈망하고 나에게 의해 구속되기를 원하고 나를 그들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로써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어떤 혼도 내 대적자가 깊은 곳에 가둬둘 수 없다. 그러나 혼의 의지에 반하여 나는 혼을 내 대적자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혼이 내 대적자를 고백하기 때문에 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의 의지가 내 구속역사가 혼에게 도움을 줄지를 정하고 혼이 자신에게 측량할 수 없게 제공되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입을 지를 정한다. 그러나 혼의 의지와는 반대로 혼이 은혜를 받게 할 수 없다. 내가 실제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은 곳에 있는 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혼에게도 나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고 나를 따를 자세가 되어 있고 내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내가 가장 무거운 사슬을 풀어준다. 나는 모두에게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준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모든 사람이 내가 원래 초기부터 사랑하는 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B.D. No. 6513

1956년 3월 30일

내가 짊어진 인류의 죄는 말할 수 없게 무거웠다. 악한 행동은 그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쳐야만 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만 했다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한때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한가지가 이미 아주 커서 너희는 이 죄를 묶여 있는 상태나 또는 인간의 상태에서 속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모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내가 감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인간의 내 육체로 짊어졌고 내 육체가 아주 고통이 참만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의 죄를 속죄했다.

내 사랑이 너희들 돕게 했다. 모든 빛이 참만한 영적인 존재들과 나에게 신실하게 머문 모든 창조 된 원래의 존재들은 너희를 향한 같은 사랑으로 참만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도 멸망을 받게 놔두지 않고 사랑은 어떤 것도 어둠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 놔두지 않고 사랑이 큰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사랑 자체가 빛과 사랑이 참만한 존재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인간적인 형태로 일어나야만 했고 사랑이 인간의 겉형체를 입어야만 했다. 나 자신이 육신을 입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안에서 거했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는 죄가 없이 순수했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인간 예수가 너희 죄를 속죄했다. 인간 예수가 거대한 인류의 죄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비 인간적인 고난을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이 고난의 모든 깊이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의 부족함이 이를 깨닫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고난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내가 그 안에 거했던 내 영으로 참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혼은 떨고 요동했고 사랑을 통해 도달한 신성이 그에게 실제 힘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힘이 고난의 정도를 줄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난 받기 원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왜냐면 그가 내 대적자에 의해 깊은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대적자로부터 혼들을 구매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죄가 있는 자녀를 아버지 집

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큰 죄짐이 속죄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했고 죄가 아주 컸기 때문에 희생제사도 특별하게 커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주 큰 고통을 자신이 짊어졌다. 그러므로 그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게 했고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갔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인류를 위한 이런 큰 공훈의 역사를 헤아려보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그가 전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것과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충만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그는 절대로 이런 역사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그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조용하게 처신해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 안의 신성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죄가 없이는 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는 언젠가 이 일의 모든 깊이로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가장 큰 공훈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인간이 되는 일을 통해 너희의 영역에 거했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빛의 나라로부터 내려온 그의 혼은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고 지옥의 권세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끔찍하게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혼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혼의 고통이 그의 고통을 천 배나 더 크게 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B.D. No. 8898

1964년 12월 23일

내 인간의 겉형체 안에 영원한 신성을 모셔야 할 때에 이 땅의 고통이 아주 커서 단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으로 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로써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와 싸웠다. 신성을 자신 안에 모신 사람은 자연적인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했고 위로부터 온 혼이 이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어야만 했다. 이로써 영원한 신성이 그 안에 거했고 이런 사람은 신성의 충만한 빛과 힘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왜냐면 신성은 자신의 원래의 성품에 합당한 곳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은 단지 죄가 없는 그릇 만에 거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만에 거할 수 있었다. 왜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거대한 죄 짐을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이제 인간의 겉형체인 내 안에 거했고 나는 타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

다.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었고 이런 해결책으로 타락하지 않은 존재인 천사의 영이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이 땅의 길을 가겠다는 제안했고 이런 천사의 영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성취시켰고 그가 이제 자신을 전적으로 채우고 있는 영원한 사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고 이로써 사랑 자신이 희생제사를 드렸고 사랑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짊어졌다. 이로써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이 단지 행할 수 있는 자신의 공의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죄악된 인류가 스스로는 영원히 속죄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나는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자와 싸웠고 나는 이런 싸움을 내 대적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랑의 무기로 싸웠다. 나는 사랑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사랑의 권세를 보여 주었다. 이런 사랑의 삶은 내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에 도달했다. 이런 역사는 단지 사랑이 이를 수 있었다. 즉 내 안에 거한 사랑이 인간인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타락한 내 형제들을 위해 고난을 당했고 나는 그들에게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했다. 나는 또한 내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주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내 구속 역사를 통해 비로소 열어준 문이 그들 모두에게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인간인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써 내 안에 단지 사랑이 거했고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이 신성을 영접했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아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이런 상태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인간 예수의 성품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내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겉형체를 택했다. 이런 겉형체는 자신을 나에 의해 충만하게 했고 내가 이제 모든 빛의 혼들에게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존재들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했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들이 내 원래의 힘과 내 원래의 빛을 가진 나를 절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짐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

B.D. No. 6596

1956년 7월 16일

죄 짐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다. 사람이 죄짐을 육체적인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혼이 바닥에 쓰러져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저 차원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고 경건하지 못한 삶과 불신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굽주림과 전적인 물질적인 생각과 추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는 아직 속죄되지 않은 죄의 결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의 결과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의 혼은 아직 그들의 죄로 인해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짐에 의해 짓눌려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모든 권세를 아직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대적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일로 드러나고 그들이 모든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로 드러난다. 대적자는 항상 단지 그들을 하나님의 질서 밖에 묶어두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대적자가 이렇게 많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비참함이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에게 그의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허용하고 그의 말을 듣는다. 왜냐면 그들이 아직 자신들을 그에게 넘겨준 죄에 빠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대적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분에 의해 큰 죄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 한 분은 그들의 사슬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이런 큰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신을 믿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의 십자가 아래 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를 사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로써 그들의 혼은 원수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또한 그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처한 이런 상태가 큰 영적인 위험이다.

이 땅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성숙시키기 위해 섬겨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이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세상으로 임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를 해방자로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와 그의 사명과 그들의 구원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죄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 그들의 주인이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서 도움을 청하는 일을 쉽게 막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의 주인이 그들에게 이런 돕는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감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주고 모든 사람이 진실로 이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대적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우선은 단지 그들을 짓누르는 그들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실로 이미 도움이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대신에 대적자의 영향력이 항상 더 강해진다.

왜냐면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고 이런 지식을 오류로 인도하는 것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를 믿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의 역사를 끝나게 한다. 그러나 가장 깊게 타락한 사람들을 대적자와 분리시켜 새롭게 성장 과정을 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할 수 없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새로운 성장 과정이 비록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들은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린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머물고 그러므로 그들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더 이상 길지 않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시도하는 사탄의 활동도 끝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영원히 흔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흔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특정한 인류의 타락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돕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세로 새 땅이 생성되게 하고 인간으로서 실패한 영적인 존재가 새 땅에서 다시 이런 공의한 질서 안에서 거하게 한다.

영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상태에 다시 도달하기까지 성장 과정을 다시 가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모든 존재가 가진 죄짐을 해결할 수 있고 그가 단지 존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존재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에 합당한 설명.

B.D. No. 8550

1963년 7월 6일

너희는 아주 자주 오류와 논쟁을 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항상 거짓과 오류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돕는 일을 행하지 않고 놔두지 않을 내 대적자의 분노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다시 진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역사를 숨겨 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나 자신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오류를 깨달을 수 있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데에 그들의 강한 점이 있다. 알고 있는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없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가능한 대로 이웃에게 설명을 해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대적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게 하게 시도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예수를 단지 국가의 권세에 저항을 했던 그러므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에게 향하는 길을 가려는 동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예수의 구속사역과 그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적자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을 반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말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거의 허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예수를 혼란을 일으키는 인간으로 여기게 하려는 대적자의 영향의 결과로 예수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편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강조하고 전면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전혀 다른 연관 관계가 이 긍휼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사람들이 그의 중요한 사명을 이해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내가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보내 주는 것이 바로 내 대응하는 역사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이를 이해하고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들의 설명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너희는 예수를 나 자신이 인간이 된 그 안에서 하나님인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 것 보다는 조연하는 사람으로 보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예수의 신성을 대적자 편에서는 부인한다. 그러나 이는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계시를 의식적으로 허용하고 자원해 영접하고 예수를 따를 준비되어 있고 자신을 예수 안의 나에게 향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구속사역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전한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이 땅의 삶 동안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 깨들은 사람은 진실로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전적인 의식 가운데 최종적으로 자신의 혼이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나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아주 중요하고 항상 이를 전하는 것은 이에 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거나 인간 예수에 관해 잘못 된 설명을 해주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예수를 단지 세상 권세에 저항했던 인간으로만 설명하면, 이는 그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이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진리로부터 자신의 혼을 위해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의 구속사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에 합당한 설명도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루는데 적은 성공만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런 무관심과 형식적인 믿음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나를 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들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살게 된 원인인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기 위해 진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는 내 대적자의 역사이다. 내가 그에게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생각으로 전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자신과 이웃의 혼의 구원을 위해 활용을 하게 될 사람의 의지가 진지하게 자신의 완성을 위해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막기 위해 대적자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인간의 의지만이 결정적이다.

대적자는 이 의지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한다. 단지 예수만이 그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와 예수의 구속사역을 깨달아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한 깨달음을 전해 줘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계속 추구하게 격려 받게 될 것이고 그는 그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많은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빛과 어둠 사이에 지속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내 대적자는 항상 어둠을 깊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도 항상 빛을 비추이고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내 은혜를 감사하며 영접하는 사람은 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B.D. No. 3277
1944년 10월 2일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나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난다. 그들이 이 전에 모든 질문 앞에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설명을 간구하고, 설명이 주어지면, 저항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했다는 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속사역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내 피가 죄짐으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 인간 자신이 어느정도 역사해야만 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나의 구속 역사를 영접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내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계를 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단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나와 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의 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시 중요하고,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사람이 나와 나의 사랑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그의 죄를 용서 받게 된다면, 그는 그의 뜻과는 다르게 자유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 공의와 내 사랑이 모두 무력화되고, 인간이 이런 상태를 활용하여 나에게 연결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진리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말씀에 진리가 아닌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의지가 그들이 구속 받기 원하는 지, 그들이 나의 사랑의 역사를 영접하기를 원할 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의지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단지 나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나를 거부할 때, 그는 가장 깊은 어두움과 자신의 죄에 묶여 있는 상태로 머문다. 그러므로 인류의 가장 많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의 구속사역이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죄의 용서를 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에게 재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제공하고, 항상 또 다시 그들의 혼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나로부터 도망친다. 나는 그들의 죄와 죄짐으로부터 해방시킬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지만, 그

러나 그들이 이 선물을 거절하면, 이런 선물은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의 대적자를 위해 싸우는 무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의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때 까지 아직 나의 대적자에게 묶여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실제 그들의 자유의지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유 의지가 거부하는 일을 통해, 또는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일을 통해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수혜자라는 방식으로 나의 구속사역을 제시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짊어졌고, 그를 위해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짐을 내 어깨에 짊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짐으로 나에게 넘기지 않고, 이로써 그들은 또한 자신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죄짐이 너무 강력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제 또한 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짐을 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없이 모든 죄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위한 은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해 희생했고, 내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짐을 해결해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의지가 변화되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할 때 까지 너희의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B.D. No. 7330

1959년 4월 9일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모두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단지 원하면,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의 제공이 없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고백하는 일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구속사역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게 요구해야만 한다. 그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 받은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기 원하면, 그는 언젠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또 다시 나로부터 요청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게 인도 받는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그의 눈 앞에 둔다. 이 십자가가 그에게 주는 인상이 그의 영원 가

운데 계속되는 운명을 정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게 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떠난다.

왜냐면 십자가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뒤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자신이 자주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할 때 비로소 이 길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그곳에서 삶의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직 결정적인 개념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아직 자신의 원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주기를 구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속죄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이 길을 절대적으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이 길만이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그를 다시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가 자신의 이 땅에 과제를 단지 세상 일을 함으로 성취한다고 믿으면, 그는 언젠가 비참한 가난 가운데 죄짐을 지고 능력이 없이 저세상에 도달할 것이다.

그가 구속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는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왜냐면 예수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걸형체 안에 나 자신이 거했다.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 나 자신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예수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나라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리는 사람은 나를 지나쳐 간다. 그의 운명은 그가 언젠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려는 결심을 하기까지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어둠과 고통이 될 것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B.D. No. 9010

1965년 7월 7일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일은 너희가 이 죄로부터 속죄 받으려는 의지보다 먼저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할 때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번은 너희가 한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인 너희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진

지하게 소원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 이 죄를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을 때 너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당시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형식적으로 그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즉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너희의 죄짐을 위해 하나님에게 속죄 재물을 드린 것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의식해야만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영원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너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한다. 이 것 만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사랑이 너희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과제를 성취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자신을 자신의 원초의 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그의 죄가 그에게 부담을 주고 만약에 그가 저세상에 갈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세상에서도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너희에게 빛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빛에 감사하는 열린 심장과 귀를 가진 사람을 아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신에 안락함을 주는 것만을 갈망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확실하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단지 아주 적은 사람들 만에게 구속사역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거의 전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강조되는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부족한 단지 형식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구속을 주게 하는 의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속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적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함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전적인 의식 가운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에게 구속역사가 효과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귀로만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심장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려고 하며 큰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하게 권면하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그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이제 항상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큰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음을 그리고 이 한 분 만이 큰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는 이제 용서해주기 위해 제한 없이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요청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가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여기에 큰 비밀이 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큰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 죄를 구속했다.

아멘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 구원의 역사.

B.D. No. 5740

1953년 8월 6일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빛을 갈망하면, 그는 빛을 받아야 한다. 내 공허히 여기는 사랑이 이런 모든 불행한 존재들에게 향하고,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육체가, 부분적으로는 영이 고통스럽고 슬픈 상태에 있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고 사랑으로 주는 도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실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다. 왜냐면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빛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돕도록 허용하면, 나는 그들이 다시 빛에 도달하도록 항상 또 다시 그들을 돕는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의지가 그들을 향해 펼치는 사랑의 손을 자주 거부한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의지를 바꿀 때까지 어두움 속에 머무는 일이 그들의 운명으로 머문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그들이 경직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이 빛의 광선을 갈망하도록 움직이게 만들 몇 초 동안의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 빛의 광선이 번쩍이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요청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항상 광범위한 구원의 역사이다. 왜냐면 단지 한 혼이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 자신이 위험을 깨닫고, 작은 빛을 받으면, 고통당하는 혼을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한 혼의 구원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 땅에서 보다 저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면 혼이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어두움의 상태를 느끼지 않고, 혼에게 빛이 제공되면, 혼이 단지 적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성공한 구원 역사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빛의 광선이 그들에게 아주 큰 부이고, 혼들이 이제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빛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작은 깨달음의 빛이 한 혼에게 비추면, 혼은 계속하여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혼 안에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혼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지식과 함께 혼 안에 또한 이런 지식을 전해주려는 소원이 일어나고, 혼 안의 사랑이 불타 오르고, 혼은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은 가게 된다. 의지가 연약한 곳에서 내가 돕고 내 수단은 진실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수단이다. 나는 내 피조물을 깊은 곳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항상 혼의 의지가 자극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이로써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내 사랑의 힘에 감동을 받고 깨어날 수 있게 한다.

나는 내 사랑의 광선을 내 대적자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비춘다. 내 대적자는 나를 방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마찬가지로 어두운 혼들에게 역사한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가 이미 그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혼을 강하게 한다. 너희의 사람들은 너희의 중보기도를 통해, 너희가

이런 혼들에게 의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으로 기억하는 일을 통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생각으로 혼들을 가르치고, 혼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힘과 은혜와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비록 너희가 단지 한 혼에게 도움을 주어, 이 혼이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면, 말할 수 없게 큰 수확을 얻은 것이다. 왜냐면 모든 혼에게 자신의 추종자들이 있고, 추종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감사와 축복으로 스스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감사와 축복을 불행한 혼들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혼들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동역자들을 얻게 되고, 그들은 저세상의 나라에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내 사랑은 어떤 내 피조물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섬기고, 불행한 존재가 그의 형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동역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아멘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B.D. No. 7085

1958년 4월 6일

영의 세계에서 내 구속사역으로 인해 환호와 기쁨이 있었다. 왜냐면 모든 빛의 존재들에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또 다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자로서 빛의 나라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 준 나를 찬양하고 칭송했다. 그들은 내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3일만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이런 가장 큰 인류를 위한 공훈의 역사를 통해 부활이 보장됨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을 알았고 끝 없이 긴 기간 동안의 가장 극심한 포로상태가 지난 후에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순간이 다가옴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나를 향한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증가하고 동시에 그들은 항상 또 다시 현재로 체험할 수 있는 구속사역에 참여한다. 왜냐면 빛의 나라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그들은 모든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과정에 동참하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이를 통해 가장 큰 축복의 얻을 것이고 그들의 심장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에 대한 환호와 깊은 감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과정은 일회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 없다. 비록 이웃의 잔인함으로 그들에게 견딜 수 없게 보이는 환경의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자주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과정이 함께 역사했다. 이는 그의 육체의 고통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왜냐면 혼은 가장 높은 깨달음 가운데 있었고 이로써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당했을 영적인 위험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악한 역사를 그에게 행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순수한 육체가 지옥의 보냄 받은 자로 느꼈던, 그들의 불쌍한 욕망과 악한 충동 만족시키는 일을 당하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를 견디었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3일 후에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로써 그의 부활은 그의 구속사역의 최고봉이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속하게 만든 모든 사람이 자신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전에도 사람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면 혼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영원히 계속 산다. 그러나 혼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인지 죽음의 상태인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저세상에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기를 구할 때까지 그는 오랫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한 분이 죽음을 극복했고 이 한 분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고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호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그의 가시를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진실로 부활했다. 내 구세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B.D. No. 5952

1954년 5월 9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중요성을 잊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자신을 아버지께 향하는 다리로 묘사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영과 생명이 없는 문자이고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향해 다가갈 의지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않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자세가 멸망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그들은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들이 높은 곳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사람들이 위를 향해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한 상태이다. 아무도 그가 아버지께 귀환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귀환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생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아버지 사이의 간격이 크지만 한 분이 인도하고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고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건설했고 이런 분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분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가운데 이 분을 지나친다. 비록 이런 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자신에 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가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것을 활용해야만 하고 삶의 목적인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에 성공하는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와 연합이 비로소 축복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어떤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유일하게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도피처로 삼지 않음으로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는 지를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비록 말씀이 위로부터 전해질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귀를 여는 다른 목소리인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죄와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는 일.

B.D. No. 6449

1956년 1월 11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름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의식적으로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일은 소용이 없고 사람이 먼저 진지하게 예수에게 자신을 드러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죄짐을 의식해야만 하고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짐과 연약함에서 자신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구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즉 그는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 뒤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관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모든 사람을 구속했다. 즉 어느 누구도 그의 긍휼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뜻과는 반대로 그의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그에 의해 구속 받으려는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런 역사는 완전히 의식적인 역사이고 그가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이제 그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인정하는 일은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도움은 구원역사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구속 받는 일은 사람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어려움이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을 의미하고 이런 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어떤 혼도 자유롭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그들은 이런 믿음을 통해 그들의 눈에는 이교도인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을 피했다고 여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단지 형식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결정을 강요받으면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벼운 심장으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면 믿음이 아직 그들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잘못 된 이름을 부여한 진정한 이교도들이고 이교도들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부과한 더 강력한 속박을 의미한다. 이런 속박에서 해방되기 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들이 이번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붙잡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에게 다시 펼쳐질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쉽게 이런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는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그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설득력이 있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그에 감명을 받고 한번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도움을 줄 것이고 사람의 생각에 자신이 떠오르게 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빛을 받기 원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각을 통해 그에게 말할 것이고 그가 자신에게 향하는 길을 진실로 쉽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믿음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선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 아주 큰 위험이 있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구속받기 위해 자유의지가 요구 된다.

B.D. No. 7369

1959년 5월 22일

나는 너희들로부터 너희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는 보장을 너희의 삶이 이제부터 단지 너희의 목표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내 손에 두게 되고 너희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자유의지로 이런 보장을 해주지 않는 동안에는 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정해주는 역사를 할 수 없다.

너희가 이 일이 내 대적자에게 속한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는 공의를 내가 대적자에게 보장해 줘야만 하는 나와 내 대적자 사이에 너희 혼을 얻기 위한 싸움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속하고 영원히 나에게 속해 머물려는 이런 보장을 먼저 해야만 함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자유의지가 비로소 이제 나에게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권리를 주게 된다. 너희 혼의 원수는 너희가 그의 추종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연약함과 실수로부터 아직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를 얻기 위해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너희가 아직 내 대적자가 나를 떠나 타락한 이래로 그로부터 유전 받은 것인 실수와 연

약함과 정욕들과 모든 종류의 죄를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너희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너희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구원을 위해 인간 예수로써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로부터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 전에는 너희가 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불가능 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원죄로 인해 그에게 너희 자신을 바쳤고 그가 그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절대로 자유롭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나를 대적하는 이런 존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았으면,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영적인 세계가 구속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자유의지는 자유하고 그 자신이 선택한 주인에게 자유롭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의 추종자들도 내 대적자에게 머물 수 있다. 그의 의지는 존중을 받는다. 나는 내 대적자에게서 그에게 속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주인에게서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를 표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강제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구속을 받기까지 영원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런 존재는 구속을 받지 못하고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존재는 내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가 나에게 향하면, 존재가 자유의지를 다시 받는 인간의 단계에서 내 대적자에게 의식적으로 떠나서 나에게 향하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속해 남기를 원하면, 내 구속사역은 영원한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항해 싸우고 그의 의지의 강한 정도에 따라 일어나는 그를 내 대적자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는 의지의 강함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는 요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일이 그가 구속사역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속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를 강하게 해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한 사람을 나는 더 이상 영원히 놓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 지치지 않으면서 싸우고 그가 그의 실수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능력을 제공해주면서 그를 돕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그의 생각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의 돌봄으로부터 그를 절대로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의지가 나에게 향하고 내 뜻을 성취 시키려고 시도하고 의식적으로 내 대적자를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구속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사람의 의지를 요구한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들

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속사역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나는 단지 나와 지속적인 연결을 요구한다. 이로써 너희 안으로 능력이 계속하여 제공 될 수 있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너희의 구속이 이루어질지 또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향하는지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 구속사역은 헛되게 드러진 것이 될 것이다. 내 구속사역이 헛되게 드러졌다는 주장을 하면, 지금까지 주장 된 오류들 중에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속했다.

그러나 단지 구속받기 원하는 사람이 구속사역의 은혜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사람은 축복될 수 있다. 왜냐면 그 의지가 내 대적자로부터 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혼을 위해 내 피로 구매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B.D. No. 8420

1963년 2월 23일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내 영원한 계획이고 이 계획은 실행이 될 것이고 단지 이런 변화에 걸리는 시간은 너의 자신이 정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는 언제든지 그에게 능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매해 주기 위해 모두가 이 은혜로 나에게 귀환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권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한때 나로부터 창조 된 존재들은 깊고도 깊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하고 이제 자신의 완성을 위해 자유의지로 이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가 모든 온전함으로 내 권세와 내 사랑으로 생성되게 했던 자신의 원래 성품을 덧입을 때까지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권세가 너희의 온전함의 근거가 아니고 너희의 자유의지가 온전함을 추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원래 초기의 내 계획대로 했다. 인간으로써 단지 아주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시험이 된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영원에 비할 때 단지 눈 깜짝할 사이이고 이런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하면, 완성에 도달하는데 충분하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람들은 의지를 올바르게 향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 은혜의 크기는 소모되질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서 그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인 그 안에서 나 자신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그 자신으로부터 빛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자신을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이제 나를 깨닫고 자신을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했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동시에 자신이 마지막 성장을 이루게 자신의 원래 초기에 가졌던 성품을 바꾸는 마지막 목적에 도달하게 도달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으로써 피조물에서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을 완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단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한다. 이 결정을 위해 그에게 이 땅의 삶이 주어 졌다.

왜냐면 그가 인간의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의지와 내 권세가 뒤로 물러나고 사람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는 아주 높고 의미가 크다. 왜냐면 피조물으로써 최고 단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존재에게 내 권세가 선물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축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완성시켜야 할 완성시킬 수 있는 너희 자신의 역사이다.

왜냐면 내 사랑이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러나 너희에게 넘치게 은혜의 수단을 선물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너희가 성취시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비추어지고 너희가 이런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여는 만큼 너희의 위를 향한 성장은 쉬워질 것이고 너희는 더욱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진 강한 자기 사랑을 올바르게 신적인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주려고 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전적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다. 그에게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내 대적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인 자신의 자기 사랑을 극복한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는 사랑 안에서 항상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열중할 것이다. 이 사랑은 혼에게 설명을 해주고 혼을 밝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랑은 성장할 것이고 혼을 전적으로 채울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귀환의 완성에 이르렀고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냐는 너희가 이 땅의 삶에 성공할지 결정적인 요소이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 졌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마치면, 그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원죄로부터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나라에 들어 갈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위해 먼저 죄 사함과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마지막에 가서 너희 혼이 육신을 입을 당시와 같은 상태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살았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간에 전적으로 무의미 함을 생각하면, 너희는 스스로 인생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야만 한다. 너희가 사후에도 지속되는 삶을 도무지 믿으면, 너희는 사후의 삶을 아름답게 구성하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 이로써 항상 또 다시 그들의 생각이 자극을 받는 기회가 예수에 대한 관점을 정하려고 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가 아주 지극히 작은 준비된 자세를 가질 지라도 주님 자신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고 그가 주님을 믿는 일을 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자유의지가 주어진다. 그가 구속받기 위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은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단지 짧은 시간이고 혼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이로써 죽음의 때에 빛의 영으로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의식적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길을 갔다. 왜냐면 그에게 육신을 입기 전에 그의 인생의 과정과 목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제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 모든 혼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했었고.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해 물질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소원을 이루는 최종적인 기회를 제공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을 입을 때 그들에게서 이 지식은 다시 거두어 졌다. 그러므로 모든 혼이 구속사역을 통해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원죄를 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역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줘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들이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지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통해 그리고 모든 큰 원죄를 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문을 통해 빛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통해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

리스도가 없이는 이 문은 닫혀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를 절대로 자유롭게 놔두지 않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